

7. 인삼의 연작 장해에 대한 연구 동향

한국 인삼 인초 연구소

오승환, 이종철*, 김홍진

Review of studies on soil sickness due to continuous cropping of ginseng.

Korea Ginseng & Tobacco Research Institute

Ohh, S.H., J.C. Lee and H. J. Kim

(실험 목적)

오랜 세월동안 인삼이 재배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도 뚜렷한 연작장해 해소방법이 없어 이동경작에 의한 생산비 증가와 더불어 재배적지 소진으로 인삼재배의 불안정성이 우려된다. 따라서 인삼의 연작장해 해소란 인삼사업을 위해 중요한 일이므로 기왕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인삼의 연작 가능성 일부를 진단해 보았다.

(재료 및 방법)

연작장해의 원인 및 증상과 이의 해소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고찰하여 인삼의 연작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작 요)

- 연작 장해 요인은 병원균, 뿐비물, 인삼유체의 분해산물 및 비병원성 미생물의 활동으로 구별될 수 있었다.
- 균무병 억제토양의 충출액은 균무 병원균의 발아 및 성장을 억제시켰다.
- 인삼의 연작장해 증상은 뿌리썩음, 지상부 생육억제, 조기낙엽 등이었다.
- 토양 흔증과 길항 미생물의 처리로 일부 토양에서는 연작이 가능하나 균무병 유발 토양에서는 이를 처리로 연작해소는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담전 윤작의 작부 체계로 연작이 가능하다.